

만남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06 2024
통권 604호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표지설명

50주년기념관에서 바라본 교회 본당 지붕의 모습입니다. 영락교회 본당에는 순교와 부흥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대들이 눈물의 기도로 질곡의 현대사를 헤쳐온 이곳에서 지금 우리는 소망의 기도로 통일선교의 비전을 세워갑니다.

사진 이상현 집사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 예배
- 교육
- 선교
- 성도의 교제
- 봉사

6월 목회력

- 01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7 금 · 연합권찰모임
- 16 주일 · 새가족환영회
- 21 금 · 금요권찰모임 상반기 종강
- 24 월~29 토 ·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 28 금 · 특별금요산상기도회(1차)

- 02 주일 · 찬양예배 성찬
- 09 주일 · 제직회
- 19 수~23 주일 · 북한선교대회
- 23 주일 · 북한선교주일, 사회봉사주일
- 26 수~28 금 · 대학부 농촌전도봉사활동

만남

2024년 6월호
통권 604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시간을 해석함 김운성

북한선교 특집

05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김형찬

08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박수광

12 우리의 땅끝은 북한입니다 김혜영

15 광야 같던 남한 사회 적응 최유진

18 北으로 낸 창(窓) 오창익

20 6월이 오면... 홍성표

22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 동산 북한선교부

기획연재

23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 정희성

다음세대 / 청년광장

26 하이(Hi)!탐험대~ 열매를 찾아서 권희주

29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성호

30 하나님의 계획하심 홍주석

32 그리스도와 버터의 향기 제바울

34 한 공간에서 예배·교제...천국의 풍경 이렇겠죠 정상경

땅끝까지 이르러

36 바울 걸 디도처럼...농어촌 선교사역 정인기

39 개교 50주년 맞은 아신대 정홍열

만남 그리고 사람들

42 전쟁 속에서도 소명 다한 영락 인 미

46 고난이 유익이더라 김응기

영락의 울타리

48 짧은 머리에 새기신 소명과 은혜 양동욱

50 와우! 신나!! 영락가족 축제한마당 이민하

52 이기는 자, 새벽별을 받으리니... 서동희

53 제18회 영락미술인선교회 정기전 영락미술인선교회

54 어머니의 찬송, 제겐 은혜였습니다 심춘옥

교회소식

55 2024 영락청년 선교비전 외

60 죽으면 죽으리라



시간을 해석함

김운성 위임목사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11~14)

1992년에 개봉한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전 시카고대학 교수인 노먼 맥클레인(1902~1990)이 자신의 가족사를 토대로 1976년에 시카고대학 출판부에서 펴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나, 영화는 그다지 크게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1900년대 초,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목사인 리버랜드 맥클레인은 몬타주 강가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아내와 두 아들 노먼과 폴과 함께 강에서 플라이낚시를 즐기며 삽니다. 신중하고 지적인 노먼과 동적이고 자유분방한 폴은 어린 시절부터 기질이 다릅니다. 영화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후에 작은아들 폴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가족은 슬픔에 잠깁니

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노먼은 강물처럼 흘러간 세월과 함께 흘러온 가족사를 회상하며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인생도 시간과 함께 흐릅니다. 인생은 시간과 함께 그 모습이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그 후 청년, 중장년을 거쳐 하류인 노년기를 맞습니다. 그 후엔 바다라고 할 하나님의 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쁘게 살면서 시간의 흐름을 잊기 쉽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예민하게 깨닫고 반응하는 데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 90:12)라고 기도했습니다.

우선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즉 시

유한한 인생, 시간 흐름을 포착해야 경건한 긴장 아름다운 결단과 행동이 시간을 빛나게 만들 것



간의 포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종종 그 흐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일 1부 예배부터 찬양 예배까지 드리는 동안 강단 꽃을 통해 시간을 느낍니다. 1부 예배 때는 봉오리였던 꽃이 3부 예배 즈음에는 약간 벌어지더니, 찬양 예배 시간에는 상당히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수요일기도회 무렵에 활짝 피어있던 꽃은 금요일기도회 때면 이미 시들어갑니다. 꽃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봅니다.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는 것은 경건한 긴장을 가져옵니다. 그 흐름은 언젠가 우리를 마지막 시간 앞에 세울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순간이 눈물겹도록 귀합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 4절에서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그림자를 ‘새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남기는 그림자는 얼마나 순간적일까요? 인생이 그렇다는 말 이겠습니다.

또 시간은 해석을 요구합니다. 시간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을 떠서 새벽임을 알았다면, 그다음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새벽이 요구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벽은 새로운 날이 되었으니 일어나라고 속삭입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다면 시간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청년일 때, 중년일 때, 노년일 때,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인생의 내용

이 결정됩니다.

지난 2천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그리스도인 중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영혼의 갈등이 심하던 어느 날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들어서 읽으라, 들어서 읽으라, tolle lege! tolle lege!”라는 노래 가사를 듣고 충동적으로 집에 들어가 펼쳐진 책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는 자신이 깰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깊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해 볼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을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흐르는 시간을 포착하는 일, 그리고 해석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결국에는 인생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행동을 촉구합니다. 깰 때가 되었다는 해석을 얻었다면, 이제 펼쳐 일어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결단과 행동은 시간을 빛나게 만들 것이고, 인생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날로 살길 원합니다. **만남**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북한선교의 비전을 뛰어넘어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일선교는 긴장과 대처로 얼어붙은 이 땅 위에
평화와 일치, 화해와 통일의 복음을 스며들게 하십니다.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2024 북한선교대회

우리는 통일의 염원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연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교착됐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분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의 발언 이후 북한에 있던 대남기구들이 폐지됐습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간 교류협력을 전담하는 ‘민족경제협력국’,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던 ‘금강산



김형찬 목사
북한선교부
강서·구로·양천교구

국제관광국’ 등이 그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재 확인하며 북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에서 선대의 통일 업적을 선전하는 상징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발언과 이후 북한의 움직임은 그동안 남북관계를 지탱해오던 뼈대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함께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이하 중략)’. 남과 북은 서로에게 외국이 아니며 남북관계는 외교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임을 규정했고 이 규정은 남과 북에서 법과 제도, 정부조직, 남북 간 벌어지는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그 근거이자 뼈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발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5.3%(별로 필요하지 않다 21.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8%)로 나타나 역대 최고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남북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고 있는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얼어붙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필요성, 간절함도 점점 더 사그라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영락교회 북한선교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현실에 탄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탄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가득한 죄악과 폭력, 불법에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부르짖은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시대에 대한 고뇌와 간절함을 담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묵시(말씀)를 분명히 기록해라. 이 묵시(말씀)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2024년 6월 북한선교대회를 맞으며 우리 영락교회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불법이 가득한 북한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을 심판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북한 동포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통일의 역사가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을통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정권 밑에서 억압받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며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찬양과 예배하는 그 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2024 북한선교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남**

2024 북한선교대회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3)

6월
북한선교대회
주요일정

5, 12, 19일(수)	수요1,2부	북한동포사랑기도회, 간증 및 영상	본당
15일(토)	오전9시	송악기도처 기도회	송악기도처
16일(주일)	오후1시50분	영락포럼(강인덕 (전)통일부 장관)	선교관
16, 23일(주일)	오후2시	북한영화 상영	50주년소강당
21일(금)	오후7시30분	북한선교 특별금요기도회	본당
23일 (북한선교주일)	1-5부	북한선교주일 예배 및 공동기도문, 홍보영상	본당 및 부속실
	오후5시	찬양예배(정형신 목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본당
	종일 ※	광장행사(북한땅밭기,기도문,자유인공연,포토존,바자회)	베다니광장

※ 교육부 연계 프로그램(공모전) 포함

함경북도 온성 다리
(고난의 행군시기에 두만강을 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곳)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의 비참함과 전 세계 인류에게 미치는 고통을 실감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한국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지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편집진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운성 담임목사와 신대원 동기로 졸업한 인연으로 영락교회에 대한 친근감과 애정을 품고 있다고 부끄럽게 고백하면서 북음통일에 관한 소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과 북 복음 안에 하나되는 그날까지 기도

한국 교회가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나 더 크고 강대한 국가를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영적 대추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함입니다. South Korea, North Korea, Diaspora Korea가 하나 되어 지구촌을 섬기는 New Korea 되기를 오랫동안 외쳐

왔습니다. 분단국가로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던 코리아가 화해한 야곱과 에서처럼 서로 부둥켜안고 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최악 치달는 남북관계... 온통 비관적 전망

그러나 남북관계는 악화하고 있습니다.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후 무력시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교류 협력마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재외 동포를 통한 지원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국제정치적 상황도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통일은 가능할 것인가? 자유로운 왕래와 경제공동체만큼의 통일이라도 과연 수십 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의 마을을 자유롭게 다니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능할까?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



곽수광 목사*
푸른나무교회 담임

* 필자 곽수광 목사는 북한과 아프리카 등 세계의 장애인과 어린이들을 돕는 국제구호 NGO인 국제푸른나무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국내 60여 개 인도적 대북협력단체로 구성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대북협력 사역을 펼치고 있다.



국제푸른나무는 북한을 비롯한 세계의 어린이와 장애인들을 돕고 있다. 왼쪽은 두만강 지역 급식, 오른쪽은 런던 장애인올림픽

까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오천 명의 배고픈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벧세대 빈들에서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라는 과제 앞에서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통일 위해 일하라” 하나님 음성 생생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서 통일을 위해 일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 시작했던 (사)국제푸른나무 이야기를 여러 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케이프타운의 라이온스헤드 산에서 매일 하던 새벽 기도 중 8일째 되는 날 성령충만을 경험했습니다. 탈진과 우울증으로 허약해졌던 제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통일을 위해 일하라,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북한의 장애인들과 고아들을 돕던 권세열(Francis Kinsler) 선교사의 며느리 신영순(Sue Kinsler) 선교사를 만나 기부천사 연예인으로 알려진 선과 대학생 자원봉사원정대와 함께 (사)국제푸른나무를 설립하고 북한에 있는 20여 곳의 고아원과 장애인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 됨은 복지적 도움뿐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문화적 교류가 필요하다” “통일의 주역으로 청년들을 일으키라”라는 마음으로 북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북 탁구스타 이분희와 장애인 협력 사역

수년간 신영순 선교사님의 섬김으로 사역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참관하던 중 북경에서 북조선장애인체육협회의 이분희 서기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 씨는 현정화 씨와 단일코리아팀으로 세계대회 복식 우승을 한 탁구선수로, 장애인 아들을 둔 덕분에 장애인체육협회 서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낙원에 무슨 장애인이 있

나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장애인이란 표현도 없어서 불구자들, 머저리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국제대회에 나가 경기를 한다는 것이 감동적이라고 당장 북한에서 장애인 체육을 시작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탁구대 다섯 대와 용품을 북으로 보내면서 장애인 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주성이라는 한쪽 다리와 팔을 사고로 잃은 소년이 런던 패럴림픽에 출전권을 얻어 역사상 최초로 북한 패럴림픽 선수단이 런던에 오게 되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푸른나무교회와 함께 후원바자회와 음악회를 열어 경비를 마련했으며, 런던 한인교회들과 교민들도 <윤석화 송솔나무 송정미 음악회>를 통해 재정을 모아 주셨습니다. 비록 수영 경력이 일 년도 되지 않는 임주성 선수가 꼴찌로 들어왔지만 가장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BBC를 비롯한 세계 언론들이 북한 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남북한에 뿌려진 협력 씨앗들 결실 기대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았습니다. 장애인을 대함에 있어서 인권 국가로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북한 전역에 장애인을 돕는 조직들과 사회적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고, 순안공항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생겼습니다. 평양에는 장애인 전용 택시 사업이 시작되고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북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7년 싱가포르에서 남한의 보건복지단체 대표들과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간부들이 만나 장애인들의 문화교류와 국제협력사업을 논의한 것은 기적적인 열매였습니다. 2019년에는 런던의 CCCG(Capital City College Group)와 평양에 장애인 직업교육센터를 세우기로 합의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추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세월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고아들을 통한 평화와 화해, 협력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합·연대의 기도로 주님 손에 오병이어 올려야

그렇다면 국제푸른나무가 창립 예배를 드렸던 때보다 더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또 다른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의 오병이어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역사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제푸른나무 창립예배 설교에서 103세이셨던 방지일 목사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시편 56:8) 말씀을 인용하시며, 기도의 눈물이 가득 찰 때 통일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장애인 국제포럼

| 사진제공 국제푸른나무

둘째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갈라진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휴전선 철조망 앞에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하나 되면 통일을 주시겠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전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셋째는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국제적 문제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남북통일과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유엔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각자의 나라 안에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 북한장애인선수단과 함께 갔을 때, 브라질 성도들이 12시간 차를 운전하여 환영하러 왔습니다. 먼 상파울루 공항뿐 아니라 더 먼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오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10만여 명의 성도를 대표하여 먼 길을 온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유로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언제나 더 놀라운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은 기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복음만이 진정한 통일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우리의 땅끝은 북한입니다

월드비전의 북한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르짖었던 밥 피어스 목사의 기도는 한경직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월드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고통받는 이들의 곁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지난 75여 년간 월드비전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되돌아보면 전쟁의 상처 속에 있던 우리를 향해 전 세계 많은 이웃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힘으로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월드비전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과 가정을 돕는 가운데 우리는 북녘땅에 태어난 어린이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시작한 북한 사역은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혜영 팀장
한국월드비전 북한사업실
길신교회 집사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시작된 월드비전의 북한 사역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연이은 자연재해와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소식이 외부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하기 전인 1994년, 가장 먼저 황소 지원을 시작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식량, 의약품 등 긴급구호 지원을 했습니다. 온 나라를 덮친 식량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은 연약한 어린이와 노인이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1996년,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평안남도 평원에 국수 공장을 세웠습니다. 당시 월드비전은 평양이 아닌 식량난



평안남도 평원에 세운 국수공장

이 더 극심한 지방에 국수 공장을 짓기로 하고, 오랫동안 월드비전 이사장으로 섬겨오신 한경직 목사의 고향에 첫 번째 국수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굶주림이 심각한 5개 지역으로 국수 공장을 확대 신설하여 약 6만 명의 어린이와 주민이 매일 하루 한 끼의 국수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월드비전 북한 사업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개발 협력사업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는 일회성 구호로 해결되기 어려웠습니다. 월드비전은 북한의 식량난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농업개발 협력사업에도 앞장섰습니다. 감자는 산지가 많은 북한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한 구황작물로서 식량난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자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없는 씨감자를 지속해서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양강도 대흥단 감자밭



한경직 목사를 예방한 텔런트 김혜자 권사(월드비전 홍보대사)

월드비전은 2000년부터 한국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경재배를 이용한 씨감자 생산체계’를 북한에 도입하여, 북한이 자력으로 무바이러스 씨감자를 생산하고 전국의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외부의 일회성 씨감자 지원이 아닌, 초기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들더라도 북한 내에서 씨감자를 자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자립적인 생산체계를 수립하는 데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평양과 황해도, 양강도, 평안도, 함경도 등 5개 지역에 씨감자 생산시설이 구축되었고, 연간 1,500만 알 이상의 종자를 생산하여 감자 재배 기술과 함께 각지의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식량 증산과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채소와 과수 생산성을 높이고자 온실, 과수원 설치, 농업기술



국수 먹는 북한 어린이들

| 사진제공 한국월드비전

전수, 품종 개량 사업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농학자가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 농업인에게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북한의 한 사업 관계자는 “월드비전은 다른 구호단체와 달리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일에 역점

월드비전의 북한 사역이 지향하는 궁극적 방향은 단순한 물자 나눔을 넘어, 북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에 남북 농업 전문가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된 ‘남북농업과학심포지엄’에는 지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6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귀중한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채소 품종 개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젊고 유능한 농업 인재를 선발하여 이론 강의와 실습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국가 품종 개발 등 농업 증산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일, 월드비전은 사람을 키우는 데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식수 개발과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월드비전 북한 사역의 주요 영역입니다. 농촌 지역에 깨끗한 식수원을 마련하고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설치했으며, 보건과 영양, 위생 교육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2006년에 시작된 식수 위생사업을 통해 7개 농촌 마을의 2만여 주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북녘 동포를 품는 사랑의 여정 이어가

2021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북한은 가장 먼저 국경을 걸어 잠그고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북한이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속에서는 이전처럼 활발한 교류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남과 북, 복음으로 하나 될 통일 한국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기에 월드비전은 오늘도 묵묵히 북녘 동포를 품는 사랑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전쟁고아를 돌보는 일로 시작했던 월드비전은 지금 이 시각에도 북녘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 섬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땅을 어루만지고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 나눔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북한의 아이들과 주민을 돕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나누는 사랑이 경계를 넘어 한반도 구석구석에 흘러갈 때, 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향한 소망도 더욱 환히 빛날 것입니다.

무너진 삶과 허물어진 집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그날, 북녘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가득 넘치는 새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땅끝, 북한을 품는 그 소망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남**

광야 같던 남한 사회 적응 '영락의 품'에서 평안을 얻다

면도날 들고 탈북, 정착은 더 어려운 과제

탈북하던 날 저는 입안에 면도날을 들고 있었습니다. 탈북이 실패하면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팔을 결박당해서 손을 쓰지 못하게 되면 면도날을 꼭 물어 허를 끊어낼 생각이었습니다. 탈북을 결행하는 자유인들 모두가 목숨을 담보로 북한을 탈출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한국에 당도해도 많은 자유인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숨을 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탈북과 정착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남한에 갓 입국한 자유인들에게 대한민국은 자유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모래바람이 세찬 황량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자유인예배부는 저에게 하나님의 빛과 온기를 전해주고 바람을 막아 쉴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최유진 성도
중구·용산교구
자유인예배부

성경과의 첫 만남

유물 변증법적 세계관에 기반한 정규교육을 착실히 밟아온 저에게 있어 어떠한 종교든 믿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목사님에게 건네받은 성경을 처음 보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까만 가죽 표지에 '개역개정·새 찬송가'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퍼를 열면 그 안에서 악령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조건으로 숙식을 제공받았기에 억지로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렇게 2주 남짓 기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읽었다기보다는 읽는 척 흉내만 냈던 것입니다. 얼마 후 한국으로 함께 출발하기로 했던 일행이 집결 장소에서 공안의 기습을 받아 모두 체포되어 강제 복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불과 1분여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복송을 면했다는 안도감이 지나가자 곧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눈보라 날리는 동북에서 얇은 추리닝 하나만 걸친 채 혼자 남았던 것입니다. 겨울밤은 지독하게 길었습니다. 너무 떨다 보니 근육에 경련이 일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 있기도 그렇다고 앉아있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코와 목구멍이 얼어붙고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틀째 되던 밤에 희망 없는 고통을 끝내버릴지를 고민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면도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하는 여러 이유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겪은 사건들은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금껏 믿어본 적도, 존재하는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이유를 보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이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라고 부르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한 사회의 부조리를 걷어내고, 정의를 구현해 줄 절대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저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예배부에서 아내를 만나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서 하나교회 전도사님이 추천해 주신 영락교회 자유인예배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인예배부는 남북한 출신 성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자유인의 시점에서는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해 주는 곳’ 또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특별하게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혼자 탈출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웠고, 밤마다 꿈속에서 공안과 북한 보위

부에 체포되고 탈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번번이 전화기를 꺼버리고 ‘잠수’타는 횡수도 늘어났습니다. 탈북을 결심할 때의 비장했던 각오가 무색해지고, 스스로가 초라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그저 괴로웠습니다. 이런 자신이 주변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만두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갔던 날에 자유인청년부에서 다음 연도 임원진 선거가 진행됐는데, 공교롭게도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단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자유인청년부 회장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8개월 후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소설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자유인예배가 진행되는 선교관에서 지도 목사님의 주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자유인예배부 장로님이 제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주셨고, 권사님들과 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출발을 축복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자유인예배부가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 가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결혼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학교의 리포트를 ‘옹기’ 주제로 작성했던 일은 저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의인을 사탄에게 내주어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약 2년간 취업에 도전했습니다. 어렵사리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거쳤지만 최종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기를 반복했습니다.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 조바심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자존감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잊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를 저를 무조건 믿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취업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자유인예배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교사님의 소개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성실함과 전공 실력을 바탕으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부서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착 10년... 사랑·봉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지 10년 남짓 지내는 동안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세 아이를 거

느린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유인예배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유인예배부는 저에게 있어 고향 집과 같은 의미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곳에 처음 받을 들였을 때 반겨주고 위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함께 남한 정착을 시작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대부분 이곳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인예배부는 제가 설만한 물가이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처럼 고향을 떠나 자유를 찾아 내려온 탈북 자유인들에게 제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헌신을 나누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의 저와 저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자유인예배부와,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만남**

北으로 낸 창(窓)

북쪽 하늘 아래 소중한 기억 붙들어 두려는 뜻

남쪽으로만 창을 내고 살겠다던 시인이 있었다. 쏟아지는 햇빛, 푸른 초원을 마음껏 바라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나는 그늘진 북쪽에다 창을 내달고 하늘만을 건네다 보며 산다. 그렇다고 맑은 햇빛이나 푸른 초원이 싫어서가 아니다. 그것만치나 아깝고도 소중한 고향을 그쪽 하늘 밑에다 두고 왔기 때문이다.

호마의북풍(胡馬依北風)이요, 월조소남지(越鳥巢南枝)란 옛 시가 있다. 잡혀 온 말이나 쫓겨 온 새도 고향 쪽으로만 머리를 두고 깃 또한 튼다 함인데, 북으로 창을 낸 실향민의 마음인들 그와 무엇이 다르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창을 통해 고향을 보는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알지 못한다.

피란 30년… 주거, 산행, 조행도 북쪽 고집

어디 창문뿐이랴. 피란 살림 30년이 넘도록 서울 북쪽 변두리를 단 한 번이라도 떠나본 적이 없는 고집스런 나의 제한 주거, 그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직장이야 동서



오창익 은퇴집사
고양·파주교구, 창작수필가
(전)인천시립대 교수



남북 어디라고 가릴 바가 아니지만, 당일 코스의 산행(山行)이나 조행(釣行)도 으레 북한산 주변이거나 임진강가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아니던가. 강남보다 덜 북비는 호젓함 때문도 아니요, 용단을 펼친 듯 곱게 단장한 통일로의 코스모스 꽃길도 좋아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녀석처럼 통일의 종이 올리면 한 걸음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달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농친 봉어를 꼭 잡고야 말겠다는 고집이기보다는 언젠가는 지나가다 다시 물어 줄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자리를 못 뜨는 낚시꾼의 미련과도 같은 것, 가물가물한 기다림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갔던 곳을 가고 또 가는 내 고독한 산행이요 조행이지만, 그건 언제라도 왠지자지결 떠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고향 나들이에도 비길 수 있다. 해서, 햇빛이 쏟아지는 넓은 초원을 마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남창보다는, 어둡지만 그리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하늘을 위해 그 하늘 밑의 소중한 기억들을 오래오래 붙들어 두기 위해 나는 북쪽으로 창을 트고 산다.

북창, 실향의 세월 거슬러 가는 좁고 굽은 길

임진강가. 경의본선(京義本線)이 동강이 난 지점에 ‘철

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다. 한때는 그 표지판 앞 잔디밭에다 떡국을 끓여 놓고, 내 어린 딸애들은 생전에 한 번도 뵈 적이 없는 북쪽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눈을 감고 새해 세배를 드리곤 했다.

“세배받으세요. 큰 손녀딸 지연이에요…”

하지만 그 딸애가 커서, 어느새 남의 아내가 되어 지금은 어엿한 아기 엄마가 되질 않았는가. 그사이 표지판도 풍우에 씻겨 글씨조차 알아볼 길이 없어지고.

풍우에 씻긴 것이 어찌 글씨뿐이라. 그 철길을 따라 동상을 입은 언 발을 질질 끌며 남하하던 기억에도 녹이 슬어, 지금도 벚길 난가리 속에서의 새우잠도, 폭격에 풍비박산이 되어 같이 오던 누나를 잃고 눈보라 속을 헤매던 배고픔도 모두 꿈속의 일인 듯 가슴에 와 아리게 닿질 않는다. 뿐인가. 드럼통에 매달려 대동강을 건너는 나에게 꼭 살아 돌아오라고 흔들어 주던 어머니의 옥양목 손수건도 아지랑이처럼 멀기만 하다.

어머니 손때 묻은 치마끈처럼 위로와 평안

세월 탓이다. 이도 저도 볼품없이 초라해진 내 나이 탓이다.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운 게 세월이라 하더니…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7년 전 내 손수 설계하여 집을 지을 때 북쪽으로 창을 하나 달아내게 한 것은, 어이없이 고향을 잃고 오듯 남은 세월마저 속절없이 놓치기가 억울해서였는지도 모른다. 흘러가는 세월의 발자국 소리야말로 귀보다는 눈을 감고 마음을 기울여야 알아듣는 법, 햇빛이 쏟아지는 환한 창가에서야 어디 엿들어 보기라도 하겠는가.

그러니까 남창이 한낮이라면 내게 있어 북창은 늘 고요한 한밤중이다. 가고자 하면 언제라도 훌쩍 떠날 수

있는 온 좋은 사람들의 넓고 시원한 고향길이 남창이라면, 북창은 나와 같은 실향민이 조심조심 세월을 거슬러 되돌아가는 좁고도 굵은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은, 붙잡기만 하면 언제나 마음이 편해지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치마끈과도 같은 오솔길인 것을….

나의 북창가, 늘 새롭고 정직하게 하는 곳

그러기에 지친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 한동안 어지럽기는 하지만 이윽고는 맑은 물과 시원한 바람으로 다시 씻겨 새 뜻을 달아 주는 아늑한 포구(浦口), 그게 나의 북창 언저리다. 더러는 아픈 상처를 만져도 주고, 이 글거리는 노여움도 식혀 준다. 어쩌다는 잊고 살았던 내 심장의 박동 소리가 아직은 젊게 뛰고 있음에 새삼 놀라고 감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침저녁, 때로는 늦은 밤에라도 다가서 보는 북창가. 살아있음에 대한 요행보다는 끝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로 하여 나는 늘 그 앞에서 정직해지고 새로워진다.

소나무로 테를 둘러 터놓은 좁은 공간, 비록 한 평에도 못 미치는 창문이지만 내게는 그 어떤 명품이나 고가의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대를 이어 아이들에게. 그다음 세대까지라도 소중한 가보이듯 길이 전해지고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다. 호마(胡馬)나 월조(越鳥)에 버금가는 실향민의 아픔으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지금은 한란(寒蘭)의 계절, 마침 열 송이가 활짝 피어 고향 가는 거리기인 듯 날갯짓을 하기에, 나는 북창 가까이로 그 화분을 옮겨놓는다. **만남**

『내 잔이 넘치나이다-오창익박사 여든 살 기림문집』중 '北窓'



6월이 오면...

독립운동 한목숨 바친 애국지사들

6월이 오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보위하고자 하나뿐인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이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진다. 일제 치하에서 말달리던 선구자의 무대였던 용정(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도시)에는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애국지사들이 세운 ‘사나이 이 한목숨 나라 위해 바치고자 하나, 바칠 조국이 없구나!’라고 새겨진 탄식비가 있다. 잃어버린 국권 회복을 꿈꾸며 각오를 다졌던 애국선열들의 비장함을 생각하면 애절한 마음에 가슴이 절로 미어져 온다.

일평생 조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머슴으로도 살 수 있지만, 나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고, 백범 김구는 “사람은 집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나라를 잃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역설했다. 류관순 열사는 일제의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

이 한스러울 뿐이다”라며 순국했다. 하나같이 나라 잃은 비통함을 후세에게 전해주는 뼈에 사무친 금언(金言)들이다. 선열들의 이 같은 격언은 오늘의 우리에게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생업 못지않게 중요하나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고 있다.

국권 잃으니... 유대인의 부(富)도 학살 못 막아

국권을 잃은 민족들의 수난사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시 6백만 명 이상 학살됐던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기에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국제연맹이 나치 정부에 학살 중단을 요구해도 내정간섭이라며 일축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풍요롭게 잘 살았지만, 부(富)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진 못했다. 오늘날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에 걸친 쿠르디스탄 지역에 사는 3천만 명의 쿠르드족 또한 국권을 잃은 결과, 소수민족으로서 온갖 핍박과 고난의 역경 속에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일제 치하의 대한제국도 마찬가지였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일제 만행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뜻있는 지사들이 가산을 몽땅 팔아 국경을 넘어가 독립군을 양성하며 일제에 항거했던가. 나라 없이는 개인의 영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다. 당시 선열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권을 회복하고자 고귀한 희생을 불사했다.



홍성표 안수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북한선교부 차장

호국의 달 6월, 순국선열 존경 뜨거워져

6월이 되면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존경과 우국충정을 주체할 수 없다. 오늘의 이 빛나는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분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오늘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바쳐주신 것이다.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국가체제가 채 정비되기도 전에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전국이 잿더미가 됐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에 힘입어 국가재건에 박차를 가했고, 불과 70여 년 만에 눈부신 대한민국으로 성장했다. 그것은 전쟁의 여파로 그토록 힘들었던 시절을 오로지 국가재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허리띠 졸라매고 매진한 결과였다.

폐허 딛고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선망하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 6대 국방력, 여섯 번째 30~50클럽의 자유민주주의국가 위업을 달성했다. 실로 감개무량하지 않은가!

자원 빈국인 데다가 일제의 수탈로 남아난 것이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의 선대들은 순전히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 같은 국가발전을 이룩해냈다. 수출 외에는 달리 길이 없음을 인식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구로, 인천, 구미, 울산, 마산, 창원, 포항, 대전 등 수출자유특구와 중화학공단을 건설하면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혜택과 국제시장 개척에 국가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1970년대 섬유산업, 80년대 조선과 철강, 90년대 자동차와 가전, 2000년대 초고속 정보통신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면서 오늘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힘... 이젠 문화 대국 점프

이러한 성공의 열쇠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 중국, 소련과 동맹을 맺은 북한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은 한국에 무상원조를 시작으로 국가재건을 파격적으로 지원했고, 기술협력은 물론 무역최혜국 대우를 30년 이상 보장했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의 기업들이 일어섰으며 대한민국 브랜드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했다.

게다가 오늘날 한류문화는 국제무대를 압도하고 있다. 영화, 음악, 스포츠, 바둑, K-음식과 K-방산에 이르기까지 한류문화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켰다. 10만 명이 운집한 K-팝 아이돌들의 해외 공연장에서 스타디움을 압도하는 한국어 떼창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전 세계 톱인 한국산 가전제품과 렌터카 회사들의 주력인 한국산 자동차들, 이 같은 국가 위업을 달성하기란 실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책무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는 개인의 생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순국선열들의 교훈을 마음 판에 새기고, 후진들이 이를 계승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만남**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 동산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송악기도처가 1년 3개월여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고 지난 5월 14일(화)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작년 3월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교회의 청원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에다 군사시설 내의 기도처라, 순수공사는 1~2개월이면 끝낼 공사가 군의 행정 절차 진행과 공사 기간 중 동절기까지 겹쳐져 애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2023 북한선교대회' 기간 중 봉헌된 헌금으로 시작되었으나, 입구 오르막 진입로의 침목 계단이 예상보다 부식이 심해서 석재 계단으로 교체했고, 인접한 군사시설의 옥상 방수와 보안 철조망도 새로이 감당해야 했기에 당초 예산안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고 추정예산에 따른 당회 승인은 물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적인 봉헌이 이어져, 누구나 와서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고픈 멋진 기도처로 거듭나게 되었다.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된 성 니콜라이 교회처럼

이날 감사예배는 영락교회 성도 및 제1사단장 최창수 육군 소장과 간부, 장병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선교부 김형찬 목사의 인도와 이철신 원로목사의 말씀으로 진행됐다. 송악기도처 태동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이철신 원로목사는 '기도 OP'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송악기도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보장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하면서 국군 장병들의 임무완수와 안전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창수 사단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영락교회의 송악기도처 통일기도 사역이 큰 결실을 보기를 기원하면서 국군을 위한 영락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 그리고 이번 송악기도처 리모델링 공사에 깊이 감사한다며 영락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이번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봉헌한 김도영 은퇴권사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안남**

특별기획 '목회상담학자가 쓰는 기독교 이야기'가 이번 호를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이 코너에서는 성경 속에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에게 친밀한 위로자로 다가서는 주님의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이며, 집필은 정희성 교수께서 맡아주십니다. 정희성 교수는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와 드류대학에서 수학한 후 현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화여대 신학대학원장과 한국 여성신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회복을 춤추시는 예수님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처럼 사랑 가득한 사람이 되려 하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인내하셨다” 하면 어떤 시련도 끝까지 버티고 참아내려 한다.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하고 본받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내려 했다. 그런데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예수님 발아래 엎드린다. 그리고 병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하시며 이를 거부하신다. 이에 여인도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여인의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을 쫓아내신다.

이 여인을 어떻게 볼까 설득력 있는 해석 없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두 접근은 조금 억지스럽다. 즉, 첫째는 구원사적 접근으로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들어가 이방 여인과 이야기한 것에 주목하여, 이 이야기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교훈적 관점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신앙의 모범’ ‘인내의 모범’ ‘겸손의 모범’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의 지나친 모욕이 여인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었을 텐데도 여인은 겸손하게 신앙에 굳게 의지해 인내했을 것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전통적 해석 역시 별로 딱 들어맞지 않는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무정하게도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거친 독설을 퍼 붙는다. 이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서 속에서 기꺼이 치유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던 단 하나의 이야기'라고까지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공격적인 표현에 대한 변명이 다양하다. 혹자는 예수가 '개들'이라고 말한 것은 공격적이기보다 친근감의 표시라고 하거나, 구원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라고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개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두로 사람들에 대한 갈릴리 사람들의 지역감정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한다. 당시 두로는 상업 도시여서 부족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갈릴리의 곡물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이에 갈릴리 사람들은 늘 먹을 식량이 부족했고, 두로의 부당한 경제적 착취에 대해 적대감이 심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식량을 강탈해 간 일본인에 대한 가난한 한국 농민들의 심정과 같다고나 할까?

아시아 여성은 '상호치유'로 새롭게 읽어

이 이야기에 대한 보다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해석은 기독교의 신인류, 즉 아시아 여성들에게서 나온다. 기독교 발생 이후 지중해, 유럽,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은 드디어 20세기를 전후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퍼졌다. 그런데 서구와 달리 아시아는 인종, 문화, 계급, 삶의 양식 등에 있어 편차가 심하다. 또 종교도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무교 등 다양하다. 이에 아시아 여성들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깊이 공감한다. 아시아 여성들은 일상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종교, 인종, 계층, 문화가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 여성들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서구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문화, 인



종, 계급, 성 등의 측면에서 자신과 너무 달라, 때로 자신을 정말 모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는 것 같을 때도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아시아 여성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상호치유' 이야기로 새롭게 읽는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은 당시 엄격한 경계 속 서로 만나기 힘든, 여성/남성, 이방인/유대인, 가난한 이들의 친구/상류층 여인, 메시아/죄인(귀신 들린 자녀가 있는) 간 만남이었다. 그래서 도저히 서로 잘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오해하고 왜곡하기 쉬운 관계였다. 이에 유대인으로서, 갈릴리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서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딸을 고쳐 달라는 여인에게 한껏 분노하시고, 고침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해석되는 모진 말을 하신다. 이방인이자, 여성이자, 하류계층이자, 죄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생경한 태도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자신들도 치유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이전과 다른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혼든다. 예수님과 여인은 신랄하게 서로의 감정과 소원을 교류하고 접촉하며, 서로 주장하고 서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은 생명 치유를 위해 함께 공조하는 것이다. 마치 서로 춤을 추듯이.

예수는 '변화하는 치유자'이자 메시아

어떻게 서로를 치유했는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공동 치유자'로 이해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에서 딸에 씌운 귀신을 쫓아낸 분은 물론 치유자 예수님이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딸의 문제를 도와줄 결정적인 사람임을 깨닫고 숨어있는 예수님을 애써 찾아냈다. 또 당대 사회문화 배경과 성육신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설득해 예수님의 본질적 사명인 생명 치유를 더욱 왕성하게 수행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한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당대 자신들을 향했던 모욕적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편, 생명 살림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현상적 모습 또한 지혜롭게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한다. 특별히 여인은 자신들을 일컬었던 조롱적 의미의 '개들'이라는 이미지를 부스러기조차 먹는 충성적인 '개들'이라는 이미지로 변화시켜 예수님께 돌려준다. 그리하여 선입관과 편견 속에서 이전에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예수님의 사고를 흔들고 틈을 내어 예수님을 이방인까지도 품는 또 다른 치유사역으로 초대한다.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는 모두 치유자이며 동시에 치유 받은 자라는 것이다.

한편,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변화하는 치유자'이다. 경제력, 출신 지역, 나이, 문화, 인종, 성 등 서로의 차

이가 너무 나면 치유 전문가라 해도 상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며 서로에 대해 배우고 변화하는 치료자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관계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병든 딸을 낮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강하게 거절하며 치유에 소극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인은 지혜롭게 반박했고, 결국 예수님도 여인의 말이 옳다고 하여 기꺼이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또 여인 앞에서 자신을 전능한 신성의 하나님이라 아닌 여인의 치유를 위한 성육신의 한계로의 연약함과 무지를 기꺼이 노출하고, 기꺼이 배우고, 기꺼이 흔들리고, 기꺼이 변화한다. 놀라운 개방성으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권위의 모델이자 진정한 메시아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달라도 너무 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나이, 성별, 경제력, 직업, 정치 성향, 출신 지역, 신학적 경향, 인종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서로 이야기하라. 서로 인정하고 기꺼이 들으라. 그리고 옳으면 기꺼이 변화하라! 여인을 위해 기꺼이 인간으로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상호치유의 기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만남**



정희성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하이(Hi)! 탐험대~
열매를 찾아서



제27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이하 '꽃들의 잔치')가 '하이! 탐험대 열매를 찾아서'(갈라디아서 5:22~23)라는 주제로 지난 5월 4일(토) 50주년기념관과 베다니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꽃들의 잔치'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진행되는, 유아·유치부 가정을 위한 신앙교육의 장입니다. 참여하는 가정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연합하고, 서로의 가정을 보고 배우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프로그램입니다.

'꽃들의 잔치'는 주제 말씀을 기초로 뮤지컬 예배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매 팡팡 놀이터(에어바운스와 범퍼카 등), 만들기 체험, 성품 애니메이션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알아보고, 화평·희락·충성·절제·사랑의 열매 배지를 찾았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찾아낸 성령의 열매들을 가정 속에서 맺어가고 가정을 넘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꽃들의 잔치'에는 총 1,012명(어린이 411명, 보호자 464명, 교사와 자원봉사자 137명)이 참여했습니다. 꽃들의 잔치에 참여한 많은 가정이 어린이날에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가정들을 초청해 꽃들의 잔치를 전도의 기회로 삼은 가정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닫는 특별한 시간

‘꽃들의 잔치’ 주제와 콘셉트,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유아유치부 교역자들은 연초부터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고, 특히 뮤지컬 예배의 진행을 위해 매 주일 부서 예배 후 함께 모여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꽃들의 잔치’에 참여한 가정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각 코너와 프로그램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고민도 겪어야 했습니다. ‘꽃들의 잔치’가 다가올수록 예상 인원을 훨씬 뛰어넘는 참여 신청이 이어진 것입니다. 혹 모자라거나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영락 꿈터’가 ‘꽃들의 잔치’ 당일에 문을 열어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었고, 프로그램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꽃들의 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선생님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주제는 어떤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교역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선생님들의 열정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 ‘꽃들의 잔치’에 참가했던 어린이에서 지금은 이 자리를 섬기는 교사가 되었다며 마음이 몽클하고 새롭다는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고등부와 청년부 자원봉사자분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꽃들의 잔치’는 영락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으로 고백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남**



권희주 전도사
유아부

기독교 청년을 위한 비전박람회가 지난 4월 29일(토)에 있었다. 이날 비전박람회에 참여한 젊은 멘토와 멘티들은 각자의 비전과 고민, 조언을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호에서는 비전박람회에 멘토와 멘티로 참여한 젊은 성도들의 직업 소명관을 지면에 담았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멘토



이성호 성도
청년부 신혼부부공동체

비전박람회에 멘토로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적 사명으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데 헌신하며,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직장인으로서 교회의 후배들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참여했어야 정상(?)일지도 모른다.

나의 작은 경험일지라도 나눌 수 있다면...

처음 지원할 당시의 내 생각은 조금 미숙했던 것 같다. 막상 비전박람회에 참여한다고 하고는 일정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죄송하지만 못 가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래도 와야 한다고 독려해준 누군가 덕분에 다시 마음을 잡고 일정을 조율했다. 멋지게 조언해줄 수 있는 멘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시작이었다. 게다가 현업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훌쩍 넘어간 데다, 최근의 취업 트렌드를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지도 않았기에, 그리고 전공이나 처음 가졌던 직업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에 멘토로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아무진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비전박람회를 담당할 청년부 회장단의 담당자가 친한 친구여서 멘토/멘티를 모집하는 글에 유달리 더 눈길이 갔고, 마침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의 기록이나

기억을 나름 잘 보관하고 있어서, 이만하면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겠다 싶었다. 그리고 취업 후 약 5년간 일하면서 경험한 삶과 회사를 떠난 후의 지극히 작은 나의 삶에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겠다 싶었다. 모집 글을 볼 때 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멘토로 지원하게 되었다.

박람회 당일에 만난 멘티 한 명, 그리고 그날 못 오셨지만 연결되어서 주일에 잠시 이야기를 나눈 멘티 한 명, 이렇게 두 명의 멘티와 짧게나마 궁금한 이야기들에 대해 나름 정리된 내용과 알고 있는 내용을 나눈 후 함께 기도 시간을 가졌다.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에 어설픈 나눔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다.

모든 멘티에게는 현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희망 업무 필드에 관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좋은 기회가 되었겠지만, 비전박람회의 진짜 의미는 업무나 취업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풀어가는 청년 공동체 모임에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막상 나부터

도 그랬다. 내가 몸을 담았던 업무 필드에 관한 이야기, 취업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도 어느덧 우리의 삶과 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와 기대, 또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이 나눴던 시간이었다.

더 많은 멘티가 멘토 되어 중보·축복하게 되길

취준생인 멘티에게서, 그리고 현업에 있어 봤지만 나름의 이유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 멘티에게서, 내가 언젠가 통과했었던 고민을 비롯하여 직장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던져졌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으며, 각 개개인 은 연약할지 모르나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세상을 이길 공동체로, 동역자로 함께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날 모였던 수많은 멘토, 멘티 한 명 한 명이 우연히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는다. 멘토들은 각자의 모양대로 은사와 경험에 따라 사랑하는 교회 후배들을 섬길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멘티들은 그러한 선배들의 섬김과 삶을 보며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멘티가 멘토 되어 언젠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멘티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비전박람회를 준비한 청년부와 회장단,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셨을 교회의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셔서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영락 청년부를,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끈으로 단단하게 연대토록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는다. **만남**

하나님의 계획하심

멘티



홍주석 성도
청년부 주는나무

지난 비전박람회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 저의 취업 준비 과정과 첫 회사에 입사하며 느꼈던 고민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3월부터 23년 6월까지 군대에서 장교 복무 후 작년에 전역한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전공 분야만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분야라도 제가 더 재미있어하고 좋아할 만한 분야를 목표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원하는 일을 하는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향기를 더 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취업 희망 분야를 정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의 부트 캠프에 참여도 해봤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저에게 맞지 않는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아, 저의 소망대로 좋아하는 분야를 찾는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했지만, 이 또한 자격증에 관한 명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 많이 혼란스럽고 지쳐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회사 생활 중 만난 비전박람회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회사에서라도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만큼 밤을 새워가면서도 최선을 다해 일을 배워나갔지만, 일할수록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며 더욱 지쳐가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 자신이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하던 중 감사하게도 비전박람회의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비전박람회에 참가한 멘티로서 강사님들의 강연과 멘토분들의 직장에서의 삶에 관한 현실을 듣는 과정을 통해 저 스스로 잘못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계획해 이룬 건 하나도 없다” 뼈 때리는 교훈

그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강사님들의 말은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 중에 이뤄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내가 뜻하

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 같다”입니다.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제 삶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주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했는지 또는 남들이 노력하는 만큼 더 스스로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등 나의 모습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신뢰하며 나의 세상적 관점과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온전히 주가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 조금하지 않게 천천히 한가지씩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인생을 배우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비전박람회 참가였습니다.

이러한 비전박람회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개최될 비전박람회에 처처럼 직업이나 비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낄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그리스도와 버터의 향기

저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식재료를 손질하고 소스를 배합하여 음식을 만드는 걸 즐기지만, 가족 외에 요리를 대접한 적은 손에 꼽습니다. 어디까지나 취미의 영역이니까요. 선교도 비슷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여러 봉사에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선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 모르던 나, 그냥 참여한 하기선교

그러던 제가 작년 여름에 청년부 하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기선교 한번쯤은 다녀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매년 반복되는 교회 행사로 인지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기선교를 간 이유는 딱 하나, '안 할 이유가 없다' 였어요. 하루만 연차를 내면 전일 참석할 수 있고, 지역도 비교적 가까운 충남이었으니까요. 복음을 위한 송고한 사명이라기보단,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기대 없었던 하기선교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구움과자 만들어 선교비전 때 팔자 의기투합

하나님께서서는 그 은혜와 더불어 좋은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

습니다. 하기선교가 끝난 이후에도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베이킹을 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를 위해 모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제의 본질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죠. 사역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쓰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스쳐지나가는 우리의 바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셨습니다.

지난 5월 26일엔 청년부 하기선교를 위한 선교비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버터 향기 가득한 구움과자를 직접 구워 판매했습니다. 이 사역의 시작 역시 송고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청년부 산상기도회에서 하기선교팀이 우연히 모여 새벽까지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구움과자 만들어서 선교비전 때 팔아 볼래?”

그렇게 베이커리 사역은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안서를 만들어 회장단에 제출하고, 계절과 환경에 적합한 구움과자를 고르고, 레시피를 조정하며 실습까지 진행했죠. 이 사역 역시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놀랄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돌이켜보면 하기선교 이후 나뉘던 교제와 활동들이 모두 다 예비되었던 듯합니다. 감



청년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카페에서 수제 과자를 선보인 영락청년들.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사하게도 하기선교팀의 많은 지체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사역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소수의 열정 아닌 지체를 즐거운 사역으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 금액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지 말자! 처음에는 고무적인 목표를 세우고 '청년부 선교비전 역사에 한 획을 그어보자!' 라는 야심찬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목표가 우리의 의만 남기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겸허함을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베이커리 사역을 이끄심은 놀랍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게 여실히 느껴져서 우쭐해질 틈조차 주어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선교에 대한 진지한 소명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미미하고, 앞으로도 다른 곳에서 요리를 판매할 계획은 요원합니다. 저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쓰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읽고 금그릇 같은 사

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능력이나 권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요리칼로 빗대어 보자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칼이라 한들 칼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칼을 잡은 사람이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 칼의 쓰임은 달라집니다. 저 혼자서 무언가를 해보려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교만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 하나님의 역사 관찰기!

신앙간증이라 하기엔 미약한 내용입니다.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했을 뿐이고 지켜본 게 전부이니, '하나님의 역사 관찰기'라 하는 게 적절할 듯 하네요. 앞으로도 깨끗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해봅니다.

그럼 아무쪼록 계속되는 청년부의 선교활동을 응원해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남**

제바울 성도 _ 청년부 신혼부부공동체

한 공간에서 예배·교제 천국의 풍경 이렇겠죠



“성민이가 두 돌 지났고 잠자는 것도 안정됐으니, 이제 예배 마치고 교제할 수 있는 부서에 들어가자. 어디가 좋을까?”
첫째 아들을 낳고 약 2년이 지난 즈음에 아내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첫째 아들을 낳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터라 공동체 교제가 매우 간절했습니다.

육아 폭풍기 지나자 교회공동체 교제 간절

저와 아내(공은아 집사)는 청년부 같은 부서에서 만나 사랑을 키운 후, 2010년 12월 영락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고, 2012년 1월 말에 출산하게 되었는데, 태반이 몸에서 나오지 않아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아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천국 문 앞까지 갔다가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저와 아내는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두 시간마다 젖 또는 분유 먹이기, 젖병 소독하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밤마다 아기가 잠에서 깨면 다시 재우기, 돌 지난 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밖에 나가자고 우는 바람에 새벽에 동네 돌아다니기 등등.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

운 성민이었지만 양육에 따른 육신의 피곤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두 돌이 지나 성민이의 밤잠이 안정되자, 그동안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던 갈급함이 제 안에서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부부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뛰어 다니고 떠들고,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부부선교회에서의 예배와 교제는 놀라움과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노는 가운데 찬양 부르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자유롭게 조별 교제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돌아다니거나 몇몇 아이들은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마태복음 19:14)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모든 거리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별 나눔시간엔 한 주간 쌓인 육아 스트레스 해소

부부선교회에서 특히 은혜가 된 것은 조별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린 자녀 양육에 힘든 일주일 보내고 모였기에 엄마들은 특히 나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공감하고, 웃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나눔 가운데 일주일 동안 겪었던 육아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고,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부선교회를 통해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부모 선교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품앗이 돌봄...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말자 다짐

조별 나눔 시간에는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 돌봄을 맡았습니다. 만들기, 그리기, 공동체 운동 등 아이들이 즐겁게 놀며 어울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역교회가 아니어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우리 교회 특성 상 이러한 활동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친구,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을 알아가며 친해지면서 믿음의 친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청소년 시기에 이때 사귀 친구들로 인해 중·고등부 예배에 쉽게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주일 오후 3시 더 많은 가정 참여해 은혜받길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공동체도 한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임 시간이었습니다. 모임 장소인 유치부실은 오후 3시 이후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은 오후 늦은 시간에 귀가할 수밖에 없어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부선교회에 많은 가정이 참여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다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뜨거웠던 대학, 청년의 때를 지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힘겨운 육아 시기를 난생처음 겪으며,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회복을 경험하기에 많은 가정이 부부선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모두가 부부선교회에서 유익한 교제와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부부선교회의 소망은 어린 자녀들과 예배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유아·유치부와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 부모가 함께 참여할 부부선교회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부선교회는 3040세대가 모여 말씀을 암송하는 와이즈맘(매달 1, 3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기념관 2층 유치부실)과 와이즈대디(매달 3주 화요일 저녁 19시 30분~21시, 기념관 2층 유치부실) 프로그램이 있으니 영락교회 3040세대의 많은 분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정상경 집사
인천교구
부부선교회 회장

바울 곁 디도처럼...농어촌 선교사역

'농어촌 교회' 하면 '탁 트인 교회 마당의 잘 정돈된 잔디밭에서 어린 자녀들이 뛰어다니는 가족적인 교회' 환경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인자한 모습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평온하고 은혜로운 모습도 겹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은혜로운 모습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계신 농어촌 목회자들이 계시며, 그분들을 통해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농어촌 교회 동반성장·성전건축 지원

영락교회 선교부와 제1여전도회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친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에 복음이 지속해서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농어촌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농어촌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섬겨왔습니다.



정인기 집사
강동·송파교구
선교부 농어촌선교2팀장

영락교회 농어촌 선교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은 크게 '동반성장 농어촌 교회 지원사업'과 '농어촌 교회 건축 등 청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노회가 선정한 16개 농어촌 교회(재정이 어려워 생활조차도 어려운 교회)에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동반성장 농어촌 교회 지원사업'과 교회 건축 등을 비롯하여 교회 시설 건축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 각지의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는 '농어촌 교회 건축 등 청원 사업'이 그것입니다.

강원·영동지역 농어촌 교회 사역현장을 가보니

이 땅의 대도시가 아닌 시골 농어촌 교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점차 도시로 확산하여 우리 민족이 복음의 민족으로 세워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인이 100명 이하 출석하는 농어촌 교회가 95% 이상이고, 이 중 60대 이상 노인은 87%가 넘는다고 합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인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성전은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농어촌 교회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며 감당하는 구원 사역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강원동노회 소속 강원·영동지역 5개 교회(기쁨의교회, 서면교회, 철산교회, 새문교회, 영화교회) 방문을 통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4월 4일(목), 농어촌 교회 선교 일정으로 예정된 강원·영동지역 5개 교회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 교회 마당에서 선교부 교역자분들과 1여전도회 회장단, 지회장 권



지난 4월 4일(목) 강원도 고성군 새문교회를 방문한 선교부 교역자와 임원, 제1여전도회 임원진

사님들과 함께 출발할 때는 예정된 일정이니 잘 다녀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5개 교회를 방문하며 현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편한 환경에서 소명 의식 없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지 다시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신도 떠난 척박한 현실... 소명 다지게 해

4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10여 명의 교인만 돌아왔으니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목사님, 젊은이들의 방탕함과 음란함으로 영이 죽어가는 양양지역이 다시금 주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목사님,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직접 타일 공사를 하면서 한 평 한 평 성전을 마련했다는 목사님...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목회 현실을 함께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고린도후서 7:6-7)

우리가 농어촌 교회와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합니다. 바울 곁에 디도가 돌아온 일이 위로가 되었듯, 우리 교회가 기도로 농어촌 교회를 지속해서 섬겨야 한다고 느낀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섬기시는 1여전도회 회장단과 임원분들, 지회장님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디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철산교회는 지난 2023년 태풍으로 교회지붕이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영락교회 제1여전도회 등의 후원으로 복구를 완료했다. 이번 여름 영락 청년들이 46차 하기선교봉사를 통해 철산교회를 방문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현재 농어촌 인구의 소멸은 농어촌 교인의 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5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렸던 농어촌 교회가 이제 출석 교인 10~20명 정도의 교회로 줄어들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은 한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농어촌 교회에 부임하셔서, 이제 60대를 넘어 은퇴를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농어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시 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없다면 농어촌 교회는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쓰러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농어촌 교회 방문 때에 어느 목사님께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때, 더 이상 힘을 낼 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 영락교회를 통해 힘주셨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신앙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반성장 농어촌교회를 방문한 것은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농어촌 목회자들의 영혼에 단비와 같은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의 농어촌 교회 사역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귀한 사역입니다.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큰 자부심과 소명 의식으로 봉사해야 할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국 각지 농어촌 지역에 선포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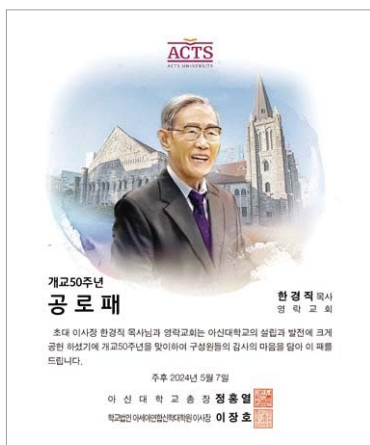
어려운 환경에서 농어촌 지역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목회 사명을 감당하시는 현지 목회자분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디도의 보내심으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남**

개교 50주년 맞은 아신대(ACTS) 한경직 목사의 선교비전 '오롯이'

지난 196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아-태평양 전도대회'에서 아시아교회 지도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 촉진을 위한 신학대학원 설립을 결의하고 1974년 5월 한경직 목사, 마삼락 박사 등의 주도로 서울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ACTS)을 개교한다. 이후 ACTS는 한국 복음주의 신학운동에 뿌리를 두고 선교지향적 신학대학을 표방하며 지금의 아신대학교로 성장했다. 이번 호에서는 아신대 정홍열 총장의 특별기고를 통해 지난 50년 아신대가 걸어온 발자취와 그 안에 오롯이 담긴 한경직 목사의 선교비전을 살펴본다. 필자 정홍열 총장은 영락교회 출신으로 장신대와 독일 에어랑엔대학에서 수학한 후 아신대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1년부터 제11대 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편집자

1974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으로 출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아신대학교 (2021년 옛 교명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현재의 교명으로 개칭)가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이했다.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께서 기부하신 현재 양평의 캠퍼스 부지에서 학교가 시작된 해는 42년 전인 1982년이다. 그럼에도 개교 50주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1974년 서대문구 충정로 187번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국제적 신학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영어명칭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약칭 ACTS)'이 설립되었던 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아신대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른쪽 사진은 개교 초기 충정로 캠퍼스 시절의 모습(1977년)



아신대 양평 캠퍼스 전경. 1982년 최창근 장로의 기증으로 현재의 캠퍼스 부지가 마련됐다

처음 학교를 시작한 충정로 187번지는 밥 피어스 선교사가 사역했던 선명회(지금의 월드비전) 소유지였다. 그래서 서대문 캠퍼스에는 피어스홀이라는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 처음 출발하여 아신대의 뿌리가 된 충정로나 지금의 캠퍼스인 양평 모두 한경직 목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창근 장로와 밥 피어스 선교사 두 분 모두 한경직 목사와 긴밀하게 사역했던 평생의 동역자 관계였고 이분들의 도움을 통해 아신대는 학교 부지를 확보하면서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이다. 50년 전 아신대학교의 출범에는 한경직 목사가 초대 이사장(초대 원장 마삼락 박사)으로 설립을 주도하였고, 아신대학교가 걸어온 50년의 발자취에는 한경직 목사의 선교비전이 그대로 녹아있다.

복음주의와 교회연합정신이 만난 선교지향적 신학

장애인 소녀 복순이 이야기를 통해 한경직 목사의 '돌봄 목회'가 일찍이 신의주 제2교회 시절부터 발휘된 것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신의주 목회 시절 시작한 보린원,

밥 피어스 선교사와 함께 설립한 월드비전(선명회) 등은 한경직 목사의 목회 사역이 이웃사랑이라는 숭고한 목양 정신에 집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한경직 목사의 평생의 신학적 구상이 온전하게 구현된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아신대학교다. 많은 사람이 한경직 목사의 신학을 '복음주의적·교회연합적 신학'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복음주의적이며 교회연합적인 신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선교지향적 신학이다.

한경직 목사는 청년 시절 국내에서 서양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후 1920년대 미국 유학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선교적 역량을 갖추나갔다. 선교는 그의 삶과 사역에 가장 깊숙이 배어 있는 신앙의 DNA와 같은 요소였다. 그가 지닌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는 빌리 그레이엄, 칼 헨리 등을 비롯하여 세계 교회를 주도해 가던 지도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1960년대 이미 한경직 목사는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 기독교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한경직 목사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네 차례

(1952, 58, 73, 84년) 방문했으며, 빌리 그레이엄이 주최하는 1966년 세계전도대회에 한경직 목사가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때때로 한경직 목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남미와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최한 세계전도대회 순회 행사에 동행하여 집회를 인도하기도 했다.

마삼락 박사와 동역...자주적 선교관이 핵심

한경직 목사의 선교 사역에는 그의 가정을 기독교로 인도했던 새뮤얼 모펏(마포삼열) 선교사의 아들인 새뮤얼 모펏 주니어(마삼락) 박사가 늘 함께했다.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장대현교회를 개척한 마포삼열 선교사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난 마삼락 박사는 중국과 한국의 선교사이자 탁월한 선교학자였다. 장신대 협동학장, ACTS 초대 원장을 역임했던 마삼락 박사는 한경직 목사와 가장 가까워서 평생을 동역한 인물로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연결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인물이다. 두 분 모두 선교를 강조하면서도 서양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선교지 교회가 아니라 자립하고 성장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강조하는 자주적 선교관을 지닌 분들이었다.

한국 교회는 일찍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선교 초창기부터 자립했던 교회로서 이제는 아시아와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 한경직 목사의 선교 비전에는 한국 교회가 아시아의 열악한 교회의 다음세대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시킨 후 다시 본국으로 파송하는 매우 진취적인 선교전략이 담겨 있었다. 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해 세워진 ACTS가 아시아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한국 교회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교육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 자국에서 교회사역과 신학교 교육사업을 하도록 독려한다. 이 사역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를 신학적으로 섬길 수 있는, 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이라

고 판단했고, 이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힘을 모아서 50년 전 한국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설립한 것이다. 이때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 한경직 목사와 마삼락 박사이다.

60여 국 650여 명 외국인 졸업생 배출

아신대학교는 처음부터 '국제적·선교적·교회연합적' 특징을 지닌 매우 특별한 신학대학으로 출범했고 한경직 목사의 선교 비전이 그대로 녹아든 선교지향적 신학대학이다. 특별히 학교가 출범한 1974년은 한국 장로교단이 분열했던 시기였으나, ACTS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경직 목사의 리더십으로 예장 통합(장신), 합동(총신), 고신 그리고 서울신학대(성결교)가 연합하여 국제적·교회연합적·선교지향적 신학대학을 세워서 협력했다는 점은 한국 교회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시작한 학교가 올해로 개교 50주년 회년(禧年)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60여 나라에서 온 65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을 배출했다. 그들은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 교회 지도자 및 신학대학 교수와 총장으로 귀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아신대가 교단 소속 신학교가 아니라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오히려 특정 교단에 얽매이지 않으며 세계 복음주의 운동과 한국 교회 연합운동의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지향적 학교로 세우심을 받은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가 아신대학교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만남**



정홍열 총장
아신대학교
중구·용산교구

주님의 목자, 믿음의 선대 헌신... 전쟁 속에서도 소명 다한 영락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영락의 초대 성도들은 피난지에서 주일 성수와 교회를 지키며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돌봤다. 믿음의 선대들은 피난지인 부산과 대구, 제주에서 교회를 세우고 피난민들의 든든한 영적 공동체 역할을 감당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교회 초대 장로이자 제주영락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았던 김규환(1913~2002) 장로 일가의 증언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한경직 목사와 영락 성도들의 고난과 은혜의 역사를 살펴본다. 인터뷰에 응한 김영실 장로(김규환 장로 처녀)와 장승구 장로(사위)는 현재 뉴저지초대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김영실 장로 내외와 믿음의 교제를 이어온 장신대 송용원 교수가 주선했다.

정리 | 인미 기자

실향민 27명으로 시작한 영락교회
선친은 한경직 목사와 피란 동행
제주에선 성전 건축위원장 맡아 완공

모자원·보린원... 약자 보듬는 사역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성도들 덕분

제 본적은 중구 저동 2가 69번지였어요. 바로 예전 영락교회 주소죠. 우리는 그렇게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쓰임받았던 한경직 목사님과과의 만남이 저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 와서 경험한 이민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전쟁 중에 실향민이 내려오자마자 영락교회가 돌로 만든 2층 예배당을 건축하고 부흥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께서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한 사람들과 진정한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우리나라에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다시 크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영락교회는 실향민 27명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잘 아는 어른들의 성함은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의 성함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신의주에서 삼일교회를 섬기셨고 27세에 피택 장로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 이후 서울에 오셔서 영락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회에서 담임목사님은 피란 가시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여, 당시 교회 서무(지금의 행정처장)로 섬기시던 아버지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피란을 가셨습니다. 어머니(백신렬 권사, 1917~2008)께서는 다섯 남매를 데리고 영락교회 백경보 장로님 댁에 마련해주신 방 한 칸에 살면서 행상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영락교회에는 일제시기에 만든 방공호(지금의 본당 아래 카타콤)가 있어서,



1992년 한경직 목사님과 자리를 함께한 김규환 장로 가족. 왼쪽부터 장승구 장로, 김규환 장로, 한경직 목사, 백신렬 권사, 김영실 장로

인민군이 온다하면 방공호에 숨었다고 합니다. 또 미군들이 구호물자를 주면 그곳에 넣어 두었는데, 피난민들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김응락 장로님(영락교회 제2회 시무장로)과 어머니는 교회의 비품을 살피러 자주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응락 장로님께서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똑같은 꿈을 이틀 연속 꿴습니다. 그 꿈이 뭐고 하니 교회 지붕에 물이 새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일 끝에 있는 사다리 두 개가 모자라서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꿈을 두 번이나 꿴니다.” 어머니께서는 “장로님, 그거 좋지 않은 꿈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남산에서 인민군들이 교회 쪽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는 김응락 장로님께 “빨갱이들이 내려오고 있으니 빨리 피하셔야 되겠수다.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고 바로 숨으셨지만, 장로님은 교회로 올라가 이것저것 정리하시다가 인민군에게 잡혀 순교하셨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은 서울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피란을 갔고,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군인들이 입는 천에 물감을 먹이는 염색 공장을 세우셨는데, 그 공장의 이름이 베다니 기업사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공장을 세우자마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실 장로와의 인터뷰를 주선한 송용원 교수(장신대 조직신학)는 제주영락교회 출신으로, 그의 어머니는 제주영락교회 은퇴권사이신데, 송 교수의 확인에 따르면, 전쟁의 화염 속에서도 한경직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예배당이 없어서 제주영락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위해 힘쓰니, 아버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어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1954년에 완공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당은 1987년까지 사용되다가 증축되었습니다. 예배당 앞에는 무화과 나무도 있어 매우 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1

1 1948년 4월에 있었던 영국교회의 제1회 장로 장립. 뒷줄 왼쪽 세 번째가 김규환 장로



2

2 1950년대 성례 전 모습. 사진 왼쪽부터 강신명 목사(이후 새문안교회 담임목사), 김규환 장로

|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이역만리 디아스포라 고단함 속에도
신앙 잃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어간 것
하나님 돌보심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

한경직 목사의 삶은 거룩함 그 자체
그러니 목소리에도 거룩함 묻어나와

아버님은 서울로 돌아오신 후 방직 공장을 세우시고 개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1969년 그만두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여자 세 분이 찾아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자원에서 세 명의 여성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모자원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사업을 그만두셨으니, 교회 산하기관인 모자원을 맡아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 생각하고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모자원을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자원에서 약 4년 정도 섬기셨습니다. 전쟁 중에 모자원,

농아부, 학교가 매년 하나씩 세워지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개척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겠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섬기시다가 갑자기 건강했던 큰오빠가 아프게 되면서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오빠를 돕기 위해 가족 모두 이민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때가 1973년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해였어요. 이민 생활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매일 감사함을 입에 달고 사시며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셨어요. 1948년도에 장로가 되신 후,



템플턴상 수상을 마치고 미국 뉴욕을 방문한 한경직 목사가 영락교회 출신 성도들과 상봉의 시간을 가졌다

1973년에 이민을 오기 전까지 당회에 참석하시고 1950년대에는 당회 서기도 역임하셨고요. 아버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 일단 기도하고 다시 결정합시다.” 하셨고, 의견이 갈릴 때조차도 주장을 하지 않으시며 “우리 기도 더 해보고 다시 의논하십시오.” 하시며 마음이 하나로 합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중요한 진리를 참 쉽게 말씀하시고, 목소리도 멋지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그분의 설교뿐 아니라 그의 삶의 거룩함과 겸손함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민을 온 지 39년이 되었지만, 요즘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영락교회 초창기에 전쟁과 가난 속에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 예배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영락교회 80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만남**

피란민 성도와 제주영락교회 개척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는 마지막 피난지였다. 1951년 1.4 후퇴로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제주도로 피난했고,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영락보린원 원생 50명을 포함한 영락 성도 350여명이 미 공군 수송기 편으로 제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경직 목사와 한 목사의 프린스턴신학교 동문인 옥호열(미국명 헤럴드 보켈)선교사의 역할이 컸다. 제주에 도착한 성도들은 제주시 성안교회와 서부교회 두 교회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던 중, 전황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자 피난지 부산과 대구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교회를 세우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1952년 1월 김린모, 김낙승, 김규환 장로 등 영락교회 초대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주영락교회가 출범했고, 1954년 영락교회의 재정적 지원 등에 힘입어 예배당을 완공했다. 올해로 창립 72주년을 맞은 제주영락교회는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사진제공 제주영락교회



고난이 유익이더라

갑작스러운 우울증, 암 진단...절망의 나락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이태 전 여름, 정년퇴직을 2년여 앞두고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 때문에 무척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밥 먹는 것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기가 힘들 만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했다. 순간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미궁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의지대로만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칠흑 터널 속 갯세마네 예수님 기도 떠올라

하나님께 속죄하듯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 우울증은 차도를 보이기 커녕 오히려 점점 더 병세가 깊어지는 것만 같았다. 불면의 밤은 점점 더 두려웠고,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 복용해야 할 약 때문에 끼니때마다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것도 엄청난 고역이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어서 하루에도 수없이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희망 없이 하루하루 출구 없는 캄캄한 터널 속을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문득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2)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자 놀라운 치유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맡겼다.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숨을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했다. 오직 예수님의 갯세마네 기도 말씀만 묵상하며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약물에만 의존해야 했던 극심한 우울증이, 좀체 낫지 않던 병세가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나를 절망에 이르게 했던 위암도 조직검사 결과 초기라고 했다. 더욱이 의사 선생님은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아서 절제술 대신 위벽을 박리하는 시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거짓말 같은 변화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서원도 잊지 않았다. 이후 병증은 빠르게 호전되었다. 힘들고 지루했던 투병 생활도 1년여 만에 서서히 막을 내렸다. 두 번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시련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렇지만 지난했던 시절의 경험은 이후 내 삶의 여정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정금 같은 성품 빚으려 고난 주신 뜻 깨달아

몇 해 전인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지으신 『사후 대책』이라는 책에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정금 같은 성품을 빚기 위함이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바르게 빚어진다”는 고난은 유익하다”라는 취지의 글이었다. 나는 당시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천착해도 공감할 수 없었다. ‘고난이 선물이라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막상 고초를 겪고 나니,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비록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금의 믿음이 생긴 것은 순전히 내 육신의 질병 때문이었으니까.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말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흐르는 냇물도 굽이칠 때가 있고, 이름 모를 작은 풀꽃도 비바람을 견디며 핀다. 추운 겨울, 밖에 널어놓은 빨래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마른다. 하물며 우리네 삶에 있어서랴.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삶은 없다. 고난의 시간이 면제된 사람 또한 없다. 그러니 선택의 여지도 없는 고난을 통해 지난날을 반추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필자와 아내(윤종순 집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되뇌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린다. ‘고난을 통해 단단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만남**

김응기 집사 _ 노원교구, 홍보출판부 교열위원

짧은 머리에 주님 새기신 소명과 은혜



고1때 암 판정... “주님일 하겠다” 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비호지킨 림프종 3기라는 혈액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교회로 올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어쩌다 한 번씩 목회자의 길을 권유하실 때마다 거부했습니다. 암을 진단 받자 그것이 생각나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드렸습니다.

1차 회복 후 결심 약해지자 암 재발

병원에 입원하고 급하게 고용량 항암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항암치료는 고단했지만 2달 만에 관해(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를 다지는 치료를 몇 달 진행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어린 생각을 품었습니다. ‘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으니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교회 장로님이 되어 교회를 섬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목회자 서원하고 2년 만에 일상 컴백

재발 후에는 항암을 해도 암 수치가 줄지도, 늘지도 않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암 환자들은 암으로 죽는다고보다 몸이 항암 성분을 버티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두세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5개월의 입원 치료와 2년의 통원 치료 끝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양동욱 전도사
강남교구
상담부 포이메네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우악스럽게 비추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심하게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에 맞춰 세심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은 어머니를 통해 제 병의 치료율이 80%가 된다는 것을 듣게 하시고 치료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죽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저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해 있던 환우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료율보다는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상에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김혜자 저), 『내가 다섯 살이 되면』(프레드 엡스타인 저)이라는 책을 통해, 죽을지라도 이 치료의 과정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하는 제3세계 아이들에 비하면 나는 참 감사한 것이다’, ‘소아암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적어도 세 배는 더 살았네’라고 여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 소망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과 감사 알게 하셔

1년이 지나자 알고 지내던 분 중 30명 이상의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년을 버텼으니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낙심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먼저 치료

받고 계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면 항암을 버티지 못하고 죽으니, 1년 안에 치료를 끝내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1년 안에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제는 1년을 넘겼으니 살 수 있겠다’라고 여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치료를 받던 10대의 저는 위의 모든 과정이 제가 잘 해서 그런 것인 줄 착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어머니의 말씀, 가족과 친구들, 교회의 수많은 분의 기도, 제가 외롭지 않도록 와주셨던 면회 등을 통해 때에 따라 알맞게 제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로 잘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제 머리는 술이 적고 짙음에도 부드러운, 기르면 힘이 없고 듣성듣성하여 아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 스타일만 놓고 보면 교회 전도사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짧은 머리를 볼 때마다 소명과 은혜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제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임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드리운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이 흐르는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제 몸에 새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곱씹는 시편 36편 9절의 말씀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만남**



와우! 신나!! 영락가족 축제한마당

지난 5월 18일, 대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850여 명의 교우가 모인 가운데 영락가족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1, 2, 3, 4 남녀 선교회와 3040MZ(청년회, 청년선교회, 부부선교회), 자유인예배부, 국제예배부가 참여해 글로벌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참석자는 장년 575명, 3040MZ 132명, 어린이 106명, 초대그룹 38명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했습니다.



이민하 안수집사
강북·도봉교구
교사교육부 부감
제2남선교회 수석부회장

이번 행사는 ‘영락이여, 올라가라!’라는 교회의 표어를 공유하며, 교우들의 단합과 3040MZ 세대의 연합 및 부흥, 교구별 및 자치회별 교류와 단합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운동 경기가 펼쳐졌으며, 박터트리기, O.X 퀴즈, 한마음 점프릴레이, 줄다리기, 어린이 계주, 달고나 게임, 탁구, 3040MZ 축구, 족구, 남녀혼성 계주 등이 진행되어 짝수 교구(다윗팀)가 홀수 교구(모세팀)을 100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어린이들은 에어바운스와 물총 게임 등을 통해 어린이날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는 위임목사님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성경책을 행운권 추첨을 통해 장년 1권, 3040 2권, 어린이 3권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올해의 신입회원 환영시간에는 20여 명의 새가족을 모시고 축복송과 오병훈 목사님의 축복기도로 환영하는 행사가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친환경 행사로 진행했으며, 문화행사로는 올드보이즈의 하모니카와 색소폰 연주, 지크로스의 난타 공연, 예수향기팀의 부채춤 공연이 운동회에 색다른 맛을 더했습니다.

내년은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다가오는 영락가족운동회를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교구, 부서, 단체가 하나되는 대연합의 장으로 만들어, 이를 통해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교회에 맡겨진 본질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이기는 자, 새벽별을 받으리니... The Morning Star

청백색 백자로 표현한 하나님의 선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8)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철장(철 막대기)으로 질그릇 부수듯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새벽 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전시 주제인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Gifts to him who overcomes)'에서 표현한 새벽별은 연한 청백색의 백자입니다. 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공중에 설치하고 싶었지만, 구운 돌 같은 작품의 안정성을 생각하여 낮은 받침대(도기)를 사용하여 설치했습니다. 적색과



흑색으로 대비된 받침대 위에 밝은 별을 올려놓으니, 새벽 여명에 빛나는 별빛의 신비스러움이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 바이블도자예술관에서 전시 중인 이 작품을 미국의 대표적 도예 전문 월간지인 <세라믹스 먼슬리(Ceramics Monthly)>에서 선정하여, '익스포저(Exposure)'지면에 게재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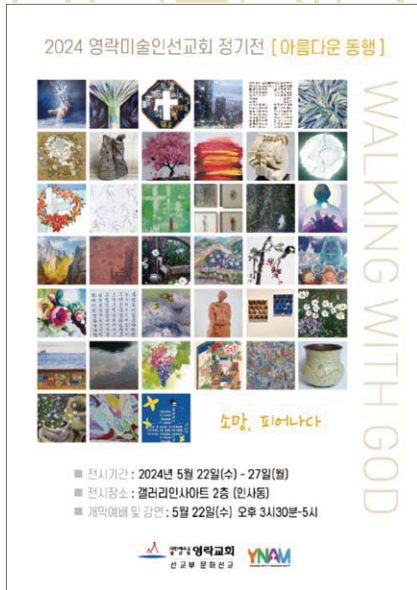


서동희 은퇴권사
성동·광진교구
건국대 도자공예명예교수

세라믹스 먼슬리 홈페이지
www.ceramicsmonthly.org

소망, 피어나다!

WALKING WITH GOD



제18회 영락미술인선교회 정기전 예술적 시각언어로 하나님 사랑 전달

선교부 문화선교 산하 영락미술인선교회(회장 위영혜 권사) 제 18회 정기전이 지난 5월 22일(수)부터 27일(월)까지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열렸다. 39명의 회원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양한 미술 장르에 담아 준비한 이번 정기전은 22일 오후 3시 30분 개막 예배를 시작으로 그 막을 열었다. 이날 개막 예배에서는 조두형 목사(선교전담)가 ‘문화선교: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돌보는 일’이란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영락미술인선교회 정기전은 예술적 시각언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표현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선교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소망,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정기전을 통해 회원들은 작가의 예술작품 속에 깃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흘러나가기를 바라며 전시를 준비해왔다.

영락미술인선교회는 매년 교회 안팎의 다양한 전시와 군부대 방문 연합그림 봉사를 펼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회원들은 영락교회 구내에 갤러리가 개설되어 문화선교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통로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정기전을 통한 예술 활동과 군부대 미술 봉사에 관심 있는 청년작가와 신입회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참여문의 : 문화선교 강주심 전도사 02)2280-0148 **만남**

어머니의 찬송, 제겐 은혜였습니다



성경 풀고 한겨울 미아리고개 넘던 어머니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엄청난 펄박 속에서도 성경을 가슴에 안고 눈보라 날리는 동짓달 엄동설한 미아리고개를 넘으시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오시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셨습니다.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면 열어주지 않는 대문 밖에서 둘째 딸을 업고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강인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셨습니다. 시외삼촌에게 전도하시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외삼촌,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자네 말이 맞아. 고맙네” 어머니는 늘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

때론 ‘하나님이 진짜 계시까?’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부르시는 찬송가에 은혜받아 마음이 편안해지며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를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며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또렷이 떠오릅니다.

‘예쁜 차네’와 친구 된 어머니는 제천에 사는 둘째 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효녀 부부에게 사랑받고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만남**

심춘옥 성도 _ 고양·파주교구

하나님을 아는 자유함! 2024 영락청년 선교비전

청년부



교사진전, 두 차례에 걸친 말씀집회가 펼쳐졌다. 베다니광장에서 열린 선교사진전을 통해 청년들이 펼쳐 온 다양한 선교사역이 성도들에게 소개됐으며, 청년부 예배와 찬양에 배 시간에 열린 말씀집회에서는 조두형 목사(선교전담)가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선교비전을 통해 봉헌된

2024 영락청년 선교비전이 'Freedom in Jesus'(누가복음 4:18-19)를 주제로 지난 5월 26일(주일)에 열렸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영락청년 선교비전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주의 자녀로서 선교적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이번 선교비전에서는 선교기금 조성을 위한 일일카페, 국내·외 선

선교목적헌금은 하기선교봉사 미자립교회 지원과 청년회에서 파송한 7개국 11명의 선교사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올해로 46회째를 맞는 영락 청년들의 하기선교봉사는 8월 14일(수)부터 18일(주일)까지 강원도 고성, 양양, 속초 지역의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복음에 빛진 벗님들! 대학부 농촌전도봉사활동



대학부(부장 김종태 장로)는 6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전라북도 남원시 입암성교회(예장 통합, 박소명 목사 시무)를 중심으로 농촌전도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명의 대학부 벗님들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농촌사역에서는 현지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전등 교체와 벽화 그리기 등 마을 환경개선 작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국내 농촌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농촌전도봉사활동 사역을 펼치고 있는 대학부는 2022년과 2023년에는 30명의 벗님들이 충남 보령에 위치한 신덕교회와 그 인근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다. 대학부의 농촌전도봉사활동은 현지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부 벗님들에게는 복음에 빛진 자라는 정체성을 함양하고 선교적 교회로의 부름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대가 함께 드린 가족주일 예배

지난 5월 12일 가족주일을 맞아 교회와 성도들은 전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주일 예배를 통해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의 소중함을 공유했다. 가족주일 전세대 예배는 평소 교회학교 예배에 참석하던 자녀들도 2부(사랑·중등·고등부), 3부(유년·초등·소년부), 4부(영아·유아·유치·대학부)에 걸쳐 부모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축복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날 예배에서는 3세대 기도와 3세대 봉헌송을 통해 3대 이상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영락의 가정을 축복했으며,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성경 봉독을 맡음으로써 전세대 예배의 의미를 더했다.

요한일서 1:1~4절을 본문 삼아 '주님과 우리 모두 더불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성경의 관통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면서, "가정은 사랑의 나라인 천국을 연습하는 공동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베다니광장에서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보내기' 전교인 캠페인을 펼쳤다.



형통한 자녀가 되기를… 교육주일 특별예배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과 교회교육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교육주일 특별예배가 지난 5월 19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김충섭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교육부장 박홍준 장로의 기도와 교육부 연합찬양대의 찬양, 방덕종 목사(교육전담)의 설교, 교회학교 교사 간증의 순으로 이어졌다. 방덕종 목사는 창세기 39:2~3의 말씀을 바탕으로 '형통한 자녀가 되기를'이란 제목의 설교에

서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라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1번으로 삼도록 키우자”라고 권면했다.

이어 교사 간증을 맡은 박현경 집사(초등부 교사)는 “망설임 끝에 시작한 교사 봉사였지만 아이들이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나게 되었다”며,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소회와 받은 은혜를 전했다. 한편 이날 특별예배에선 교회학교 장기근속 교사 46명(10년:20명, 20년:18명, 30년:5명, 40년:3명)에 대한 시상상을 통해 선생님들의 수고를 격려했다(사진은 40년 근속교사들).

교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영락꿈터’ 개장



50주년기념관 7~8층 키즈플레이존 ‘영락꿈터’가 지난 5월 4일(토) 오전 9시 30분 준공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참여를 위해 교회를 찾은 3040 부모들과 자녀들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감사예배는 방덕종 목사(교육전담)의 인도로 시작되어 초등부 최태울 어린이의 기도, 소년부 이지아 어린이의 성경 봉독(마태복음 19:13~15), 유치부 연합찬양대의 특송, 김운성 위임목사

의 설교(‘천국의 주인공’) 순으로 이어졌다.

김운성 목사는 이날 취재자 현장을 찾은 CTS 기독교TV와의 인터뷰를 통해 “50주년기념관의 두 개 층을 터서 온전히 다음 세대와 3040 부모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다소 파격적인 결정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성도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었다”며 ‘영락꿈터’ 개장의 의미를 밝혔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권사들…권사 수련회 열려

권사회

권사 수련회가 지난 5월 14일(화요일) 오전 10:30에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수련회는 1부 예배, 2부 특별간증, 3부 교구별 소



그룹 시간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사회장 송경심 권사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김명희 권사(권사회 부회계)의 기도, 권사회 찬양대의 찬양 후 인기 개그맨 출신 목회자로 우리에게 낮은 최형만 목사(인천시 동춘교회 부목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피지미 백전백승'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2부 특별간증 시간에서 최형만 목사는 개인 간증을 통해 “오직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권사가 되라”라고 권면했다. 소그룹 시간으로 진행된 3부 순서에서는 교구별 지회장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모여 식사와 다과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길을 발견했습니다”… 2024 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24 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이 지난 5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영락수련원에서 열렸다. 국내 여러 교단 목회자 사모들과 해외 선교사 사모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참여한 이번 영성수련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주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의 여는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한다”며 참석자들을 권면했다. 파송예배에서는 이철신 원로목사가 '친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섬기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은 고요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 예배



하며 강의를 듣고 자신을 살피는 프로그램이다. 참석자들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찾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기회를 제공하고 섬겨주신 영락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멈추지 않는 섬김과 봉사의 발걸음... 의료선교부의 날

의료선교부

의료선교부(부장 최성준 장로)는 영락교회 의료선교사역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봉사자 모집을 위해 지난 5월 19일(주일)에 의료선교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베다니광장과 봉사관 앞마당에 홍보 부스를 설치한 의료선교부는 브로슈어와 기념물품을 배부하며 의료선교사역의 현황과 비전을 성도들에게 알렸다.

현재 의료선교부는 매 주일 교인들의 응급 상황 처치와 의료상담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봉사관 1층에서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3~4회 건강세미나와 전교인과 외국인 성도, 자유인 건강검진을 연간 총 3회 진행하고 있다. 매년 여름에는 청년부의 하기선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 명절과 추석 연

휴에는 영락교회가 파송했거나 동역중인 선교사들의 해외 사역을 중심으로 단기의료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년 추석에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의료선교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어버이날 숲속음악회 '영락愛봄날'

영락사회복지재단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복지센터 어르신과 가족, 지역주민 등 460명을 대상으로 영락경로원 잔디마당에서 '영락愛봄날 숲속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하남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이치모터스, CJ 프레쉬웨이가 후원하고 하남문화재단과의 문화복지 협약으로 열리게 되었다.

국악과 무용, 연희 전문예술단체인 사랑국악앙상블을 필두로 개그맨 최홍림, 미스터 트롯2 출신 'K-국악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서건후, 트로트 가수 한수영 등이 출연했다. 행사 후 하남문화재단 장소영 대표는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남시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으며, 영락사회복지재단 박홍준 이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했다.





Esther and Mordecai

1675, 아르트 데 겔더(Aert de Gelder)

“죽으면 죽으리라”

구약의 에스더서는 피지배 민족의 한 여성이 왕후가 되어 위기에 빠진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사건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이방 여러 민족과 화합함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사가 드러난다. 반유대주의자의 음모로 유대 민족이 진멸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는 왕의 환심을 얻어 민족을 구한다. 에스더를 위한 모르드개의 믿음의 강권이 있었기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였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오늘날까지 부림절로 지키고 있다.

한 여성이 절대 권력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건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성이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선포할 만한 에스더의 용기와 믿음, 민족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승리했다. 이 작품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굽히지 않는 믿음이 절실한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17세기 후반 네덜란드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아르트 데 겔더(1645~1727년)는 성서의 장면을 표현한 장르화와 초상화를 주로 작업했는데, 그의 스승인 렘브란트의 영향으로 등장인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그들을 바라보는 화가의 사랑스러운 시선을 작품 속에서 보여주었다. **만남**

2024년 6월호 통권 604호

발행 2024. 06. 0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강승훈 / 편집인 김태영 /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이형일 조지형 소남호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윤영 류정현 안하운 정재원

기자 김경욱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포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영락시어터 6월 상영 영화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16, 23일은 북한선교부에서 영화 상영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2일(상), 9일(하)

(The Chronicles Of Narnia: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2005) **ALL** 139분

감독: 앤드류 아담슨 **출연:** 조지 헨리, 윌리엄 모즐리, 스캔다 케인즈, 안나 팍플웰, 틸다 스윈튼, 리암 니슨

2차 세계대전을 피해 친척 집에 맡겨진 네 남매, 어느 날 저택의 마법의 옷장을 통해 환상의 나라 나니아에 들어간다. 마녀의 마법에 빠져 영원히 겨울인 나니아, 아이들은 위험에 빠진 나니아를 구하기 위해 위대한 사자 이슬란과 함께 불가능한 모험을 시작한다.



우리의 래일은 더 푸르다

16일

제작: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

김책공업대학 박사원을 졸업한 리명은 공장대학 교단에 선 첫날, 견습공이었던 자신을 가르쳤던 기술공 창준을 만난다. 리명은 열정적으로 가르치려 하지만, 현업을 우선시하는 학생들과 경험을 중시하는 반장 장춘은 학업을 소홀히 하는 중 새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창준은 다른 부서로 옮겨진다.



우리집 이야기

23일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눈보라창작단

자립심 강한 은정은 15살에 강철 직장을 다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보살핀다. 고아가 된 은정은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거절하며 동생들을 스스로 돌보지만,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며 적극 노력하는 정아의 진정성을 알게 된 은정은 정아가 자신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곧 원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아이 캔 스피크 (I Can Speak, 2017)

12 119분

30일

감독: 김현석 **출연:** 나문희, 이제훈, 박철민, 염혜란, 이상희, 이지훈, 정연주

온 동네를 휘저으며 무려 8천 건에 달하는 민원을 넣어 도깨비 할매라고 불리는 '옥분' 앞에 원칙주의 9급 공무원 '민재'가 나타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영어 공부가 좀처럼 늘지 않은 옥분은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민재'를 본 후 선생님이 되어 달라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부탁하기에 이른다.



에스더와
모르드개

진멸 위기의 유대민족을 구한
한 여성의 용기와 믿음

1675, 아르트 데 겔더(Aert de Gelder)